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May 2019
VOL.171

이달의 CEO
박오순 ㈜영타운 FOOD SERVICE 대표이사

얼리버드의 법칙

P.06 SPECIAL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 CSR

P.28 DIGITAL 2020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과 만나다 '스마트팜'

P.32 NK NEW BUSINESS
극동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주목하라

P.40 INDUSTRY REPORT
위기의 국내 게임 산업

연잎 영양밥
연잎 영양밥은 (주)영타운FS의 자회사 연스토리에서 선보이는 주력 제품으로 백련잎 향 가득한 자연 건강식이다.

IBK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VOL 171_May 2019

P.01 THE START
과도한 근심은 경제에 해롭다

P.02 WORLD WIDE
GLOBAL ECONOMY

P.04 SURVEY
흐드러진 5월의 꽃,
누군가의 품으로 간다면

P.26 OVERSEAS COMPANY
페어플라이
비즈니스 항공료 절감을 극대화하다

P.28 DIGITAL 2020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과 만나다 '스마트팜'

P.32 NK NEW BUSINESS
극동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주목하라

P.36 ECONOMIC REPORT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P.40 INDUSTRY REPORT
위기의 국내 게임 산업

P.44 BIZ CONSULTING
중소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P.46 TAX LIBRARY
지금 당장 환원해야 하는 차명주식

P.48 TREND
당신은 매너 소비자인가요?

P.50 TRAVEL
가족여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골프

P.52 THE END
경기 침체,
두려움 대신 도전으로 맞서라



P.06 SPECIAL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 CSR

1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는 나눔경영
2 착한 영향력을 나누는 착한 기업들
3 기업의 사회공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P.16
COVER STORY
이달의 CEO
박오순
㈜영타운 FOOD SERVICE 대표이사
얼리버드의 법칙



P.22
FINANCIAL PARTNER
IBK창공人 ❶
㈜솔루게이트
내 목소리에 응답하는
지능형 컨택센터



P.24
FINANCIAL PARTNER
IBK창공人 ❷
㈜유펜솔루션
"데이터는 특권이 아닌
권리입니다"



과도한 근심은 경제에 해롭다

IBK경제연구소장 **장민영**

독일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Angst Essen Seele Auf, 1974년)〉라는 영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독일 사회의 위선을 비판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아랍계 청년 알리는 연인인 독일인 에미를 위로하며 영화 제목과 같은 대사를 말한다. 경제학 용어 중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라는 말이 있다. 과도한 경제 위기 의식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더 큰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배경인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사태도 자기실현적 위기의 사례로 손꼽히는데, 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며 실현되는 과정을 목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한 외환위기 사태의 충격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유독 'R 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기 하강 초입에 주로 발생하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12년 만에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지도 오래다.

분명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월 말 기준 약 4,050억 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한국은행은 올해 2.5%로 미국과 엇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과거 5~6% 성장하던 시절과는 다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망치다. 주요국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처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영화 제목으로 돌아가 보자.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걱정과 불안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게 한다. 그러나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 즉 '공포'는 오히려 경제를 위기의 심연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위기에 대비는 하되, 공포에 잠식되지는 말자. 과도한 근심은 경제에 해로우니까 말이다.

발행일
2019년 5월 2일(통권 제171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도진

편집인
장민영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178

Fax
0505-077-5368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
02-360-4816

인쇄소
㈜교학사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19만 6,000개

미국 3월 일자리 큰 폭으로 증가

지난 4월 5일,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일자리가 19만6,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2010년 10월부터 10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덜었다"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미국 경제의 힘의 원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8,000 억파운드

브렉시트 이후 금융 기업 자산 대거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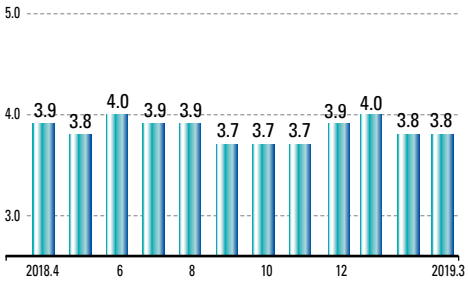
자본시장 공익을 연구하는 영국의 싱크탱크 뉴파이낸셜이 4월 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EU로 옮긴 자산이 8,000억 파운드(약 1,1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금융특구에 있던 이들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지로 흩어졌다. 뉴파이낸셜 연구진은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더 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Global Economy

세계 각국의 경제는 희비가 엇갈렸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여파로 거대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년간 미국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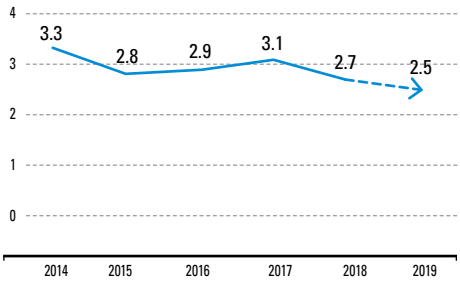
미국의 실업률은 두 달 연속 3.8%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부터 일자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으나, 3월 들어 일자리가 늘면서 실업률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단위 % 자료 인베스팅닷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2.6%로 예상했으나 4월 들어 2.5%로 하향 조정했다.



단위 % 자료 한국은행

6.4%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0.1% 높아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4%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전에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설정하고, 2조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50억 달러

터키, 국채 발행해 국영은행 긴급 수혈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터키 재무부는 4월 10일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터키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영은행이 보유한 기업 부실채권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최근 기업 디폴트가 급증하는 에너지와 건설 업종의 기업 채권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외화 부채로 인한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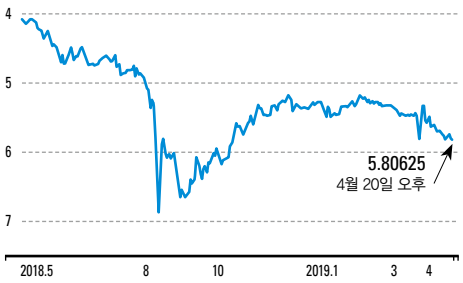
2.5%

한국은행,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 0.1% 하향 조정

4월 18일 한국은행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분기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8년 7월 2.8%였던 2019년 국내 성장률 전망은 10월에 2.7%, 올해 1월 2.6%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터키 리라화 환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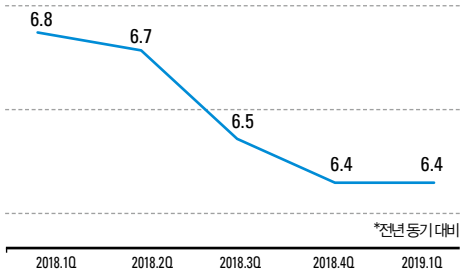
지난해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은행과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 부담은 크게 늘었다. 터키는 이에 대응해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단위 달러당 리라 **자료** 인베스팅닷컴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중국은 올해 1분기 전문가들이 예상한 6.3%를 넘어서는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흐드러진 5월의 꽃, 누군가의 품으로 간다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년의 날.
5월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달이다.



고맙

Who

꽃이 피는 5월,
나는 OO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다(중복 응답)

부모님 **66.0%**
부부, 연인 **59.8%**
자기 자신 **25.4%**
자녀 **13.6%**
스승 **7.0%**
회사 동료 또는 거래처 **4.6%**
기타 **0.8%**

« 나 자신에게도 한 송이

연인이나 부모님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꽃 선물도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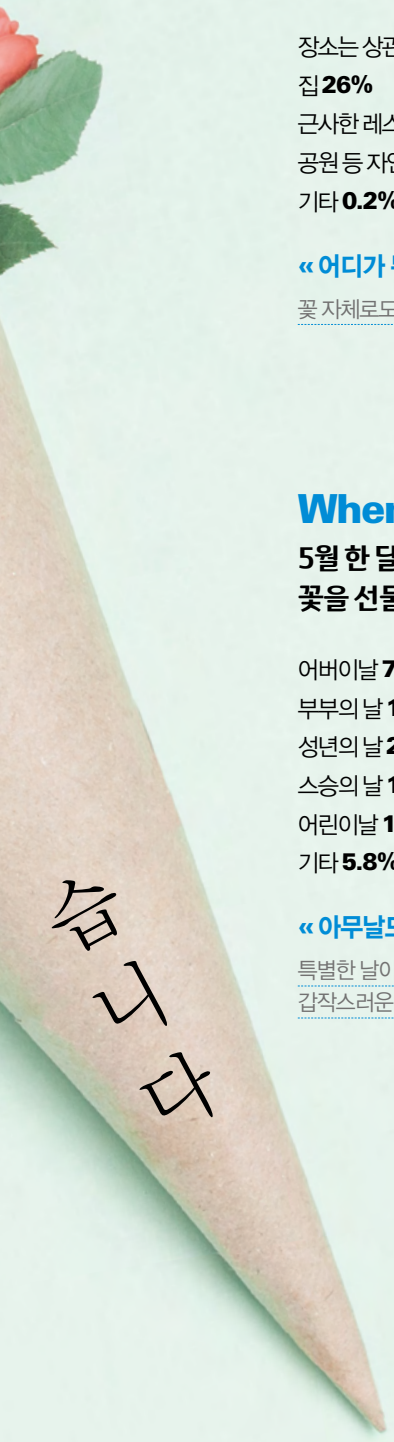
What

어떤 꽃을 선물할까?

카네이션 **38.4%**
장미 **35.8%**
수국 **13.2%**
해바라기 **3.8%**
백합 **3.6%**
기타 **5.2%**

« 꽃은 역시 붉은색

장미나 카네이션, 붉은 꽃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Where

꽃을 선물할 때 가장 어울릴 만한 장소는?

장소는 상관없다 **55.6%**
집 **26%**
근사한 레스토랑 **12.8%**
공원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 **5.4%**
기타 **0.2%**

« 어디가 뭐가 중요한가

꽃 자체로도 빛이 나니 장소는 어디라도 상관없다.

How

꽃, 어떻게 선물할 때 그 효과가 가장 좋을까?

돈이나 선물과 함께 **60.0%**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33.2%**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3.2%**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2.4%**
기타 **1.2%**

« 꽃과 함께 포옹을

꽃은 마음의 표현이니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포옹은 어떨까?

When

5월 한 달 동안 딱 1번만 꽃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언제 할까?

어버이날 **70.6%**
부부의 날 **18.2%**
성년의 날 **2.6%**
스승의 날 **1.8%**
어린이날 **1.0%**
기타 **5.8%**

« 아무날도 아닌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닌 어느 보통 날,
갑작스러운 꽃 선물이 더욱 특별할 수 있다.

Why

꽃을 선물해야 하는 이유는?

꽃의 의미와 꽃말 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40.8%**
선물만 하기에는 허전해서 **24.6%**
이유 없음 **19.0%**
사회적 통념 때문에 **6.2%**
꽃은 선물하지 않는다 **2.0%**
기타 **7.4%**

« 받는 사람의 기분

이유나 목적보다도 받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꽃의 의미.

소비 트렌드를 짚는 오픈 서베이

조사 대상 2050 남녀 500명
조사 시기 2019년 4월 중
조사 방법 온라인 오픈 서베이 플랫폼

설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 편집부
(sh961443@naver.com)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규약으로 발전해 해외 무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규약과 각종 사회적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유엔은 글로벌 콤팩트The Global Compact를 제정해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 등에서 10개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토록 권고하는 등 기업의 공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SRI을 제정해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 시 CSR 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SR의 실천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





1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는 나눔경영

WRITER 임현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틀어 CSR라고 합니다.



02

CSR란?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줄임말로, 기업 활동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경제적·윤리적 책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ISO 26000* 발표 이후 사회공헌은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CSR의 세계적 표준.

사회공헌 참여 기업 61.7%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7%에 이르는데요. 기업의 매출액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고, 제조업(83.7%)에서 더 활발히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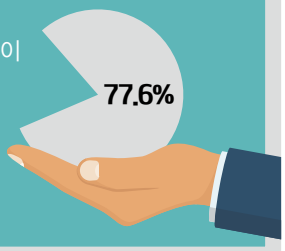


04

사회공헌의 필수 요소, CEO의 의지(77.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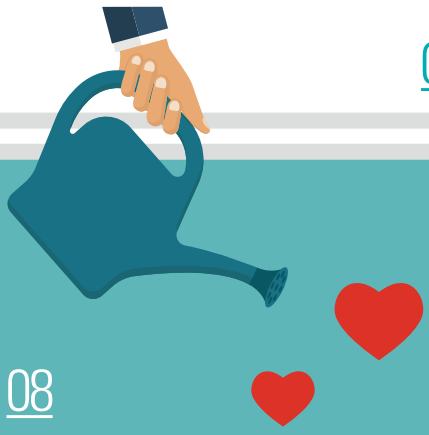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동기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10.4%)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도 있었고, '세제 혜택'(4.7%)과 '조직 미션 및 철학'(4.7%)이 이유라고 답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2018년 사회공헌 지출액 평균 2,150만 원

2018년 한 해 중소기업은 사회공헌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설문 결과 평균 2,15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360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의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06



사회공헌의 활동 대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4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원 분야는 사회복지(87.0%)가 1위였고, 기업 대부분이 현금 기부(88.0%)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



08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많은 기업이 재원 부족(27.1%)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정보 부족(14.6%)과 무관심(14.6%)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책 지원으로 사회공헌에 따른 '세제 혜택'(24.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3.4%)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9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성도 높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10



착한 영향력을 나누는 착한 기업들

2

WRITER 이준관
PHOTO 세진플러스·닷·에이텍·포위즈시스템·짱죽·다이아덴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진다. 건전한 경영으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착한 기업들을 살펴본다.

SEJINPLUS 세진플러스(주)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자립, 사회 참여 보장

의류생산 업체인 세진플러스는 취약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세운 세진플러스는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사업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힘써 온 결과 장애인 노동에 적합한 재활용 분리선별 과정을 포함한 폐섬유 재활용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현재 전체 직원의 70%가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진플러스(주).

폐섬유와 폐원단은 서울시에서만 하루 평균 250톤 이상 발생하며, 이를 소각할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세진플러스는 폐섬유를 활용한 고밀도 섬유패널 '플러스넬'을 개발해 연간 1,607톤의 이산화탄소 감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목재류 패널의 대체재로 산림 보전에도 기여한다.

세진플러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직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세진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4×4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은 근로, 4시간은 신체·감각적 발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통합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다. 이들은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는 등 일은 물론 삶의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

물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세진플러스는 병원복과 환경미화원 근무복, 장애인 교복 등 사용자별 필요에 따른 원단 기능성(항균 99.9%)과 구조 기능성(장애인 교복, 유형별 환자복)을 토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R&D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다양한 거래선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과 일자리, 주거가 결합된 '장애인 공동체마을'을 설립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생활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으로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주)닷.

dot (주)닷

정보통신기술로 시각장애인의 삶 개선

닷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점자시계 '닷워치'를 개발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닷워치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해 시계(시간, 날짜 확인, 타이머, 스톱워치) 기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마트폰의 알림을 점자로 변환해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2015년 4월에 설립된 닷은 3년 반의 연구 끝에 많은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교육 기회와 직업 선택의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했다. 원천기술(83건의 특허 출원과 27건의 등록)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점자 스마트 워치를 출시했다. 지난 15년간 시각장애인들이 교육과 직업 활동에서 점자를 활용하려면, 500만 원을 웃도는 점자정보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닷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고 저렴한 촉각 액추에이터(제어 신호에 따라 물리적 동작을 만드는 부품)의 개발과 관련해 양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대비 10분의 1 가격과 20분의 1 크기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닷워치와 닷 미니(점자 e북 단말기), 닷 패드(태블릿 PC) 등 관련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전 세계 3억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닷은 '닷 미니'를 2019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ATEC 에이텍 (주)에이텍

안정적 노사관계가 CSR의 기본

에이텍은 컴퓨터와 주변기기,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군을 공급하는 정보기술IT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경영이념을 따른다. 이들은 구성원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직원 역량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산재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인력 관리에 힘쓰고 있다. 모든 근로자의 균등한 처우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권리는 명문화해 보장한다.

1999년부터는 노사협의회 '파랑새 커뮤니티'를 구성해 우수 사원 포상, 장기 근속자 포상, 체육대회 등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문화생활 장려를 제도화하는 등 화합적 노사문화를 구축했다. 지속적인 업무 환경 개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노사문화 우수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가족친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주)에이텍.

에이텍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에이텍은 지난해 신규 입사자 30명 중 66%에 해당하는 20명이 청년이었으며, 그 결과 현재 전체 정규직 중 청년근로자 비율이 43%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고졸사원 8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에이텍의 임직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인 액정표시장치LCD 일체형 컴퓨터를 다문화 가정에 기증하고, 성남시 청소년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청바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1사 1공원', '1사 1교'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다.

(주)포위즈시스템

사회공헌은 직원 행복에서 시작된다

포위즈시스템은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SI과 스마트 교육 솔루션, 시스템 보안 등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들은 '직원이 행복한 회사,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 국가에 공헌하는 회사'를 비전으로 삼는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직원의 행복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포위즈시스템은 먼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조직 내부에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동기부여에도 힘쓴다.

또 직원들의 소통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 아이디어 발제 및 토론의 장인 '싱킹 프로포절Thinking Proposal'을 개설하고, 2010년부터 매년 전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회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자 포상 등을 지급해 이직률을 낮추며, 매년 신규 인력을 고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포위즈시스템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한다. 조손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해 해외 문화를 탐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 (주)포위즈시스템.

(주)짱죽

지역과 함께하는 착한 선순환 기업

짱죽은 유기농 쌀과 무항생제 육류, 친환경 채소류를 사용해 프리미엄 이유식을 생산하는 이유식 전문 업체다. 이유식은 갓난 아기들이 먹는 음식이어서 좋은 재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아기들에게 좋은 식재료는 단연코 유기농 및 친환경 제품이



▲ (주)짱죽.



▲ (주)다이아덴트.

다. 이러한 재료들은 해당 생산지에만 유해환경이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전체가 청정 지역이어야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 청정함으로부터 다시 이로움을 얻는 것이 농업에서의 순환기법이다. 짱죽은 이러한 이치를 기본적인 원칙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소재한 지역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짱죽은 지역의 청정한 자연에서 얻어진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만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임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짱죽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지역 업체들의 수익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와 상여금, 에너지 사용 절감액 배분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수익을 공유한다. 또한 매년 지역주민, 청년구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짱죽은 미혼모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이유식을 무상 제공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다이아덴트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책임경영

치근관 재료와 근관 충전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아덴트는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지역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를 추구한다. 다이아덴트는 신경치료 후 치근관을 채우는 충전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충북 첨단 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충북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관들과 함께 5% 자율절전 경영협약을 체결해 여름과 겨울에 전력피크를 감축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도 힘쓴다. 한편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떨어뜨린다. 전신안마기와 발마사지기,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 0%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아덴트는 매년 스마일재단에 저소득 가정과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 서울대와 대한적십자 발전기금 후원 등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3

기업의 사회공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WRITER 이준관
PHOTO 한경DB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현금과 물품 기부에서 시작해 한 걸음 나아가
각 기업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이제는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된 사회공헌 활동,
어떻게 시작하고 실행해야 할까?



▲ 형지엘리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개최한 엘리트 나라사랑 캠프.

전문 기관의 노하우에서 배우다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헌을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38.3%에 이른다. 예산 부족(71.4%)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지만 전담 인력 부족(14.3%)과 사회공헌 관련 정보 부족(5.9%)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결심하더라도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실행에 옮기기가 힘든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 기관을 통한 기부 및 후원이다. '2018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2017년에 전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비용 중 67.3%가 기부와 후원에 쓰였고, 대부분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47.8%)과 모금·배분 전문 기관(19.7%)으로 보내졌다. 이들 기관은 사회복지와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기부금을 배분해 사용하고, 기업의 기부 내용은 언론과 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또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회공헌 단체에서는 기업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사회공헌을 제안하기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 모집 외에 직원들의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착한일터', 기업의 상품과 광고에 사랑의 열매 로고를 부착하고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소비 CRM(공익연계마케팅)', 그리고 의류와 도서, 난방용품 등 참여 기업의 제조 물품을 기부 받는 '행복상자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름다운재단은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기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기금의 출연 형태, 자산 형태에 따라 아름다운재단 내 기부컨설팅 위원의 자문을 제공한다. 또 사내 이벤트와 급여 나눔 등 직원 주도형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눔 문화를 조성한다.

앞서 언급한 곳 외에도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재단은 2017년 기준 1만4,000곳으로, 재단의 활동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선택해 후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기업 특성을 살린 지속적 사회공헌

'2018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 OCI는 지난해 창립 59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1인 1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 삼성웰스토리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 '웰 365'.

83%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현금 기부와 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환경 정화 등 보편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자사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기부와 봉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구체적인 이미지도 함께 전달하는 방법이다.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대다수의 기업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보호, 지역상생 등 활동 분야 또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창호와 바닥재 등 인테리어 소재 전문 기업인 ㈜LG하우시스는 2015년부터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충칭 임시정부청사 복원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서재필 기념관, 매헌 윤봉길 기념관, 우당 이회영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등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했다.

화학 및 에너지 기업인 OCI㈜는 2011년부터 전국 벽오지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솔라 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2018년 현재 전국 279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식음서비스업 기업인 삼성웰스토리㈜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 '웰well 365'를 펼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와 급식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고,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해 연 1회 요리 나눔 교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급식의 질과 급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직업 멘토링과 쿠킹 클래스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생산하는 케이투코리아㈜는 'K2 스쿨핑'을 통해 아웃도어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캠핑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2013년부터 캠핑과 에코 어드벤처, 오리엔티어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참가자들은 건전한 아웃도어를 경험하고 자연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얻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CSR 정보가 여기에

중소기업 CSR 홈페이지(www.csr.go.kr)

중소기업의 CSR 정보가 궁금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CSR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CSR의 개념과 중소기업에 CSR가 필요한 이유를 비롯해 최신 CSR 동향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RITER 신정은 PHOTO 이소연

얼리버드의 법칙

서울 홍은동 슈퍼마켓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박오순 대표는 남들보다 일찍 문을 열고,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았다. 그것이 서비스의 시작이었다.
나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CS는 지금 영타운FS를 세우게 한 경영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충남 천안에 본사가 있는 영타운 FOOD SERVICE(이하 영타운FS)를 찾은 취재진은 벚꽃이 만발한 4월, 그보다 더 활짝 웃고 있는 박오순 대표와 마주했다. 천안, 아산, 인천, 당진에 50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영타운FS. 1988년 처음 단체급식업계에 진출한 데 이어 1997년 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고뇌는 웃음 너머로 잠시 가려진 듯 보였다.

박 대표가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처음엔 자녀 교육을 고민하다가 생각이 미래 먹거리로 확장되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슈퍼마켓을 열었다. '영타운 수퍼마켓'이라는 이름이었다. 영타운에서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손님들이 기분 좋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은 '서비스'였다.

그 당시만 해도 고객만족CS에 대한 개념이 없을 시기였다. 그저 오는 손님 편하게끔 남보다 3시간 일찍 문을 열고 3시간 늦게 문을 닫았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 내 손님을 만들고 싶었던 욕심으로 시작된 생활 습관이었다. 이런 부지런함을 좋게 봐 준 고객이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 반월공단 내 공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해 왔다. 싸고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 안산 반월공단의 식료품 유통의 첫 단추는 그렇게 끼워졌다.

성공 노하우 ❶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업장'이다

슈퍼마켓과 단체급식은 분야가 다를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공단 내에서 우리 물건은 싸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물건을 싸게 들여오려면 남보다 더 멀리 가서 물건을 구해 와야 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다 보니 '잠 안 자는 사람'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 공단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건 납품에 한 번도 차질을 빚어 본 적이 없던 차에 그 신용을 높게 사 준 기업의 관계자가 단체급식을 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 좋은 물건은 곧 좋은 식재료가 되었고, 싸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만 확보되면 근로자들에게 더 풍성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기업들은 식비 절감에 관심이 많았다. 자동차 산업이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들도 늘어났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좋은 물건을 얻길 원했고, 급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 영타운FS는 다른 급식 업체에 비해 같은 값이면 풍성했고,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도 푸짐한 음식을 대접했기에 다른 공



박오순

㈜영타운 FOOD
SERVICE 대표이사



▲ 음식의 맛은 늘 정직하기에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식단에 반영된다는 박오순 대표.

장 관리자들에게 추천을 받아 사업의 판로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영업장이었던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와의 계약 과정에 있어서도 장기 거래 고객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다 보면 천재지변을 겪기도 한다. 폭설이 내리기도, 홍수가 나기도 하는 천재지변. 그럴 때면 출근길에도 문제가 생겼다. 임직원들이 출근을 아예 못하거나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급식은 그럴 수가 없었다. 단 한 사람이 출근했더라도 제때 식사는 준비해야 했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시간, 그 장소에 물건을 납품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폭설이 내려 도로의 길이 사라진 날이었다. 공장 관리자가 '오늘은 급식 못 먹겠구나' 하고 출근한 그때, 식당 근처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허를 내둘렀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신뢰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일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그것이 20년 이상을 거래하면서 그들이 지켜본 영타운FS의 모습이 아닐까.

성공 노하우 ❷

음식에는 진심이 들어 있다

단체급식은 사업이기 이전에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의미도 남다를 것 같다.

근로자는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새벽에 별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질 좋은 음식을 싸게 들여와 더 풍성하게 식탁에 내놓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면, 좀 더 멀리 가면 가능한 일이었다. 단체급식의 또 다른 큰 고민은 메뉴 개발이다. 메뉴를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은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열정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했다. 고민이 깊어질 쯤 때마침 연세대 평생교육원에 단체급식학과가 개설되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때 나이가 서른아홉 살이었다.

주경야독을 하며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 과정이 궁금하다.

고객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렵다. 메뉴 개발은 비용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같은 값으로 다른 메뉴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맛도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단순히 '다른 메뉴'만 가지고 승부를 보기는 어려웠다. 이때는 해당 기업의 관리자와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 합의점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합의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공부를 해야만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디저트 메뉴를, 그룹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에서 20일간 합숙 과정을 거치며 메뉴 개발에 매진하기도 했다. 먹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사려면 공부가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업체에 제안하고 설득했다. 실행이 되었을 땐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음식의 맛은 늘 정직했기 때문이다.

단체급식을 오케스트라와 비유하기도 한다던데.

음식은 조화다. 밥과 국, 반찬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작품이다. 그것을 만들어 내는 팀원인 조리사, 영양사, 관리자 모두에게도 조화, 즉 화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영양을 책임지는 사람, 위생을 책임지는 사람, 납품을 관리하는 사람, 그 누구 하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식단은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관객에 해당한다. 관객들이 공연장에 와서 좋은 공연을 보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일터로 돌아간다. 그 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든다. 우리는 다시 그 제품들을 사고, 입고, 탄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같다는 생각을 한다. 돌고 돌아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의미를 두는 일임을 늘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오케스트라가 사람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듯이 우리 음식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바란다.



▲ 연잎 영양밥, 연잎 쌀국수, 연근 떡국 등을 만들고 있는 연스토리.

성공 노하우 ❸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용하라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유지하는 비결은.

농가와 계약을 맺어 쌀이나 파와 같은 농산물을 직접 들여오기도 하지만 그 외의 식재료들은 농산물 집하장에서 직접 구매한다. 집하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선별 노하우의 핵심은 시간대다. 10년 이상 집하장을 드나들다 보니 가격을 부르는 것만 보아도 식품의 질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 종합 브랜드인 '연스토리'를 설립했다. 건강식에는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연'인 이유는 무엇인가.

연스토리는 지난해까지 박선애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운영하던 영타운FS의 자회사다. 올해부터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선애 대표는 영타운FS와 함께 성장했다. 그 당시 기술이사였던 그와 함께 신사업을 고민하던 중 연잎 농가와 인연이 되어 연스토리를 오픈, 9개의 농가와 계약을 맺고 연잎 영양밥, 연잎 쌀국수, 연근 떡국 등을 만들고 있다. 벌써 7년 차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연잎의 우수성을 알고 먼저 와서 찾는다.

여성경제인 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중소기업은 대표의 생각과 결정이 기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대표의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만 한다. 유통 10년, 단체급식 20년, 그간의 경험이 나와 같은 여성 최고경영자CEO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기업 트레이더스 클럽' 총회를 만들었다. 매월 1회 연사를 초청해 각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여성 기업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더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박오순 대표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함께 고군분투하는 다른 CEO들을 위해 공유하는
그의 경영철학과 비밀.

01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잠을 포기했다. 12시에 들어오는 재료와 2시에 들어오는 재료의 질과 값은 차이가 크다. 좋은 음식은 반드시 좋은 식재료에서 나온다.

02 현장이 바로 영업장이다

새로운 영업장을 발굴하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한다. 현장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잘 풀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신규 영업장이 발굴된다.

03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과 접하는 사람들 모두 오케스트라다

음식은 먹는 순간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 영타운FS의 모든 구성원이 식단의 맛을 구성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때 하나의 작품이 되고 오케스트라가 된다. 그 음식들이 다시 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덤.

04 진심이 곧 실력이다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 더 나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메뉴 개발로 이어진다. 다양한 메뉴 고민을 통해 내놓은 식단은 곧 실력이다.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다.

05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천재지변이 생겨도 그 시간, 그 자리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것. 영업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대책을 세운다. 약속이 신뢰로 이어질 때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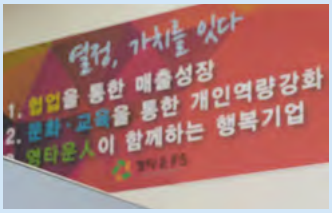
숨 쉬는 연잎밥

영타운FS의 자회사인 연스토리에서는 자연의 맛, 건강한 맛을 앞세운 연잎밥을 선보이고 있다. 연잎의 숨구멍을 살리기 위해 자르지 않고 하나의 잎으로 감싸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숨 쉬는 연잎밥인 것이다. 연의 숨구멍에 흙탕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면 연잎은 금세 시들어 버린다. 연스토리는 연잎밥과 연차 생산을 위해 현재 9개 농가와 계약을 맺어 직접 생산하고 있다. 연 계약재배로 생산되는 연잎의 양은 연간 100만 장 이상이다. 최근 숨쉬는 연잎밥과 연차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해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생산량을 200만 장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백련을 이용한 상품, 즉 연잎차, 연근차, 연잎가루, 연근가루 등을 끊임없이 개발해 웰빙 식품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연잎 영양밥.

기업 HISTORY









◀천안, 아산, 인천, 당진에 50개 사업장에서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영타운FS.

설립 초기

유통에서 단체급식 서비스 시작

1983.05 영타운 유통 설립

1997.06 영타운 캐터링 서비스(주) 설립

단체급식 사업 성장기

경영인 대상·여성 기업인상 수상

1999.05 HACCP 시범 업체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10 국제 품질 시스템 ISO 9002 인증

2001.10 단체급식 식품안전 경영대상 수상 (2년 연속)

2002.08 호서 여성 경영인 대상 수상

2004.06 충남 중소기업 경영혁신상 수상

2006.07 모범 여성 기업인상 표창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9.04 제7회 환경공업신문 환경문화상 수상

2009.07 제1회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천안시)

2012.04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 충남지회 초대 회장

2012.07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

2012.11 제1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수상 (중소기업 옴브즈만)

신규 사업 성장기

연스토리 사업 시작·본사 이전

2013.01 연스토리(웰빙 식품 제조) 사업 개시

2013.02 이업종 교류 유공자 표창 수상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03 중소기업진흥공단 표창장 수상

2013.05 연잎 쌀국수 제조 특허

2014.12 대한민국 나눔대상 수상

2015.07 제19회 여성경제인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15.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본사 이전

2016.07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ISO 22000 인증

2016.1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7.0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2018.10 연 발효 침출차 제조방법 특허 등록



▶ 2개 업체의 식자재를 비교해 싸고 질 좋은 재료를 영양사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는 복수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다.

WRITER 이준관 PHOTO 원동현

㈜솔루게이트
내 목소리에 응답하는 지능형 컨택센터

솔루게이트는 목소리 하나로 신원을 확인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컨택센터를 지향한다. 이들의 기술은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홈, 커넥티드 카 등 음성 명령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AI가 빠르게 응답하는 지능형 컨택센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은 인간과 소통하며 응답한다. 음성과 문자 명령어를 인식하고 적절한 해답을 내놓거나 전화 걸기 등을 대신해 주는 스마트폰의 챗봇Chatbot도 그 중 하나다. 만약 챗봇이 콜센터 업무를 대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목소리만으로 고객을 인지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실시간 수준으로 빨라질 것이며, 상담원들을 괴롭히는 감정노동은 사라질 것이다. 솔루게이트가 지향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다. 솔루게이트는 완전 무인화된 지능형 컨택센터를 지향한다. 화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맞춤형 응대를 할 수 있는 AI 기반 콜센터다.

목소리로 화자의 의도와 감정까지 잡아낸다

민성태 솔루게이트 대표는 창업 후 지능형 컨택센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 나갔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이전받았고 가상 상담 시스템과 무인 상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2016년에는 감성정보 추출 장치와 방법 등 AI 관련 특허도 따냈다. 그는 "단순히 음성을 알아듣고 텍스트로 변환해

3 동반자금융 3-UP 플랫폼

IBK동반자금융

2017년 8월 1일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체계 브랜드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소해 주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안정화-성장-재도약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동반자금융(3-up) 플랫폼을 구축했다.

01 성장 금융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 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 금융

- 창업 기업 대상 자금 공급 확대
- 성장 초기 기업 직접투자 강화
- IBK형 창업벤처지원센터 운영
- 창업 기업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강화

02 재도약 금융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 금융

- IBK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인프라 지원
- 기업금융 전 과정의 디지털화 추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경영 지원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도약 컨설팅 지원

03 선순환 금융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

-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조성
- 중소기업 M&A 관련 중개 기능 강화
- 다양한 EXIT 니즈 충족을 위한 전문 사모펀드PEF 운영
-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지원
- M&A 및 EXIT 지원 컨설팅 지원



▲ 민성태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솔루게이트 직원들은 완전 무인화한 지능형 컨택센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주는 단계를 넘어,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와 목소리 톤 등을 분석해 감정까지 잡아내는 기술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 자동학습 엔진, 신뢰도 엔진, 지식 기반 성문인증 엔진과 불완전 질문을 완전 질문으로 유도하는 알고리즘 등 현재 보유한 특허만 9개에 이른다.

그중 자동학습 엔진과 신뢰도 엔진은 솔루게이트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민 대표는 "기존의 챗봇은 새로운 단어를 인식하지 못해 웹상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로 자동 변환해 오류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며 "가령 '사무관'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사모님'으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자동학습 엔진은 사전 학습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다. 신기술 등 새로운 정보를 미리 입력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신뢰도 엔진은 인식률이 낮은 단어를 자동으로 분류해 준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모든 음성의 정답을 입력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오인식된 단어만 수정해 주면 자동으로 학습해 단어 인식률이 높아진다. 2016년부터 지능형 컨택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금융기관 등에 적용하며 기술을 검증해 왔다. 용인시와 화성시 등에서는 콜택시 서비스를 무인 상담 체계로 전환했다. 2017년에는 한국남동발전에 사내 음성인식 AI 정보 시스템을 공급했다. 전화 목소리로 화자를 파악하고, 부서 간 전화 연결은 물론 근태 관리와 휴가 신청 등 간단한 결재 업무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올해 5월에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컨택센터를 전주와 군산의 대리운전 통합 콜센터에 적용해 선보일 예정이다. 콜택시 등의 단순 배차와 달리 고객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그에 따른 요금, 경유지 유무 등을 인식하고 응답해야 하는 복잡한 서비스다. 민 대표는 "처음에는 무인상담원 비중을 30%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70%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가상상담원

솔루게이트는 지능형 컨택센터를 뛰어넘어 개인화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다. 지식 기반의 성문인증 기술은 이를 위한 밑거름이다. 목소리는 물론 숫자 등의 패턴과 생년월일이나 태어난 곳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입력하는 복합 인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에 웨이크업 기술을 접목하면 AI 스피커 하나로 여러 명의 가족이 자신에게 맞는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목소리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도 특허를 출원했다.

솔루게이트는 올해 초 IBK창공創工의 추천으로 현대자동차 제로원 테크페어에 참가해 지식 기반 성문인증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이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자동차에 활용된다면 차에 여러 명이 탑승하더라도 정해진 운전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해 운전하도록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여러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개발 중인 AI 스피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민 대표는 "올해 테크페어에 참가한 것처럼 IBK창공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만난다면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에는 해외 판로 개척에도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RITER 이준관 PHOTO 이광재

㈜유펜솔루션
“데이터는 특권이 아닌 권리입니다”

정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원석이다.
유펜솔루션은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웹크롤링 전문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다. 웹상에서 의미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일은 광활한 사막에서 특정한 형태의 모래알만 골라 담는 것만큼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끊임없이 검색엔진을 드나들며 복사와 붙여넣기를 반복하는 단순노동은 지금도 사무실 어딘가에서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다. 유펜솔루션은 이처럼 비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웹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대신 처리해 준다.

정보를 수집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김재훈 유펜솔루션 대표는 대학시절의 경험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제학부 연구실에서 웹데이터를 수집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웹크롤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하겠다고 느꼈어요. 졸업 후 입사한 컨설팅 회사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동료들을 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국 2년 후 회사를 나와 창업을 준비했고 유펜솔루션이 탄생했다.

김 대표는 “웹크롤링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정보망Web을 종횡무진 기어 다니며Crawling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라며, “유펜솔루션의 웹사이트인 ‘스파이더킴’은 여기에서 착안한 이름이다”라고 설명한다. 웹크롤링은 지속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한 기업은 물론 논문 등 자료 수집이 일상화된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2018년 6월에 창립한 유펜솔루션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초 IBK창공創工 마포 2기에 선발된 것은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물론 웹크롤링이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김 대표는 “상대방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숨겨진 자료들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유펜솔루션의 차별점이다”라고 설명한다. 접속하는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반복 접속으로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우회해 접근한다. 정보를 ‘수확’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관리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 김재훈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유펜솔루션 임직원들은 웹크롤링의 대중화를 꿈꾼다.

정보가 모두의 권리가 되는 그날까지

4단계로 이뤄지는 웹크롤링 프로세스도 이들의 강점이다. 1단계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2단계에서 더욱 연관성 높은 정보만을 정제한다. 3단계에서는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더욱 의미 있는 자료로 발전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프 등을 통해 시각화한다. 고객사는 수집된 정보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시장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마케팅과 영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한다.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수집해 본사에서 미리 설정한 최저 판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있는지 점검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한다. 반대로 최저가 가격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여행업계의 한 고객사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웹크롤링을 활용한다. 그 밖에도 시장 트렌드 분석, 최신 기술 동향 분석, 경쟁사 전략 분석, 고객의 소리 분석, 이슈 탐색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김 대표는 "웹사이트를 열자마자 그 달부터 꽤 많은 기업에서 문의를 받았다"고 말한다. 초창기에는 마케팅이나 홍보는 생각지도 못했고 웹크롤링 엔진 개발과 고도화에만 주력했지만, 고객사가 먼저 찾아준 덕분에 지금까지 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안에 매출 4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0년은 12억, 2021년에는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유펜솔루션의 탄탄한 원천기술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IBK창공이 지금처럼 동반자로서 유펜솔루션이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뒤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웹 기반 웹크롤링 솔루션 '스파이더킴' 올해 안에 출시 예정

유펜솔루션은 맞춤 의뢰에 의해서만 진행해 온 웹크롤링을 모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웹크롤링 솔루션 '스파이더킴'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담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2~3년에 걸쳐 정제, 분석, 시각화 기능을 차례로 탑재할 계획이다.

WRITER 이진원 실리콘밸리 특파원

페어플라이 비즈니스 항공료 절감을 극대화하다

기업이 항공권을 일단 예약했더라도 자동으로 최저가를 추적해 변경해 주는 페어플라이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FairFly

회사명	FairFly
본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고경영자	아빌 시먼토브 (Aviel Siman-Tov)
설립 연도	2013년 12월
사업모델	비즈니스 항공료 데이터 분석 솔루션
종업원 수	25명
홈페이지	www.fairfly.com

지난 2013년 이스라엘에서 아미 골든버그, 길리 리크만, 아빌 시먼토브가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페어플라이FairFly. 이 스타트업은 항공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 세계 여행사 및 기업에 항공료 절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어플라이의 항공료 추적 및 재예약 시스템은 이미 예약된 항공료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동으로 변경한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물더라도 할인가를 고려하면 비용 절감이 더 크다는 논리다. 페어플라이에 따르면 항공권당 평균 254달러(약 29만 원)의 비용 절감을 기록했고 항공권의 26%을 더 싸게 변경했다.

페어플라이의 최고경영자CEO이자 공동창업자인 아빌 시먼토브는 "우리는 전 세계 기업들을 위해 최초의 항공료 관련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페어플라이의 고급 알고리즘은 각각의 여행자의 선호와 여행 계획에 따라 최적화해 여러 층의 변수를 수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한다. 페어플라이의 시스템 흐름은 모든 티켓 유형을 식별해 기존 예약과 유사하면서도 더 저렴한 항공권을 검색하며 고객의 출장 계획, 선호도,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및 정책 등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페어플라이의 연구에 따르면 항공료는 판매 기간 동안 평균 90번 변경되며 하루에도 7번 가격이 변동된다. 항공료는 항공사의 수익 창출 기회, 부하 요인, 상향 판매, 경쟁사 가격 책정, 예상 수요 급증, 항공기 이동, 보상 항공편 및 충성고객의 밀도, 환율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실례로 페어플라이는 런던~뉴욕 항공편에서 1,158달러(약 131만 원), 샌프란시스코~



▲ 페어플라이의 공동창업자 (왼쪽부터) 아미 골든버그, 길리 리크만, 아빌 시먼토브.

히드로 항공편에서 4,139달러(약 469만 원)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 페어플라이는 변동성을 이용해 개인이 저렴한 항공권을 얻을 수 있는 비법으로 수요일, 자정 직전, 그리고 57일 전에 예약할 것을 조언한다. 그리고 비행 일자에 가까워질수록 비싸진다는 편견에 대해서도 "비행 일정의 16일 전 항공료는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여행업계에서 항공권의 실시간 가격 및 재고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세계표준 글로벌 유통시스템GDS에 있어 페어플라이는 갈릴레오 세이버 GDSGalileo and Sabre GDS를 이용하지만, 더 나아가 더 싼 항공권을 찾기 위해 아마데우스 GDSAmadeus GDS의 항공권 빅데이터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기업은 페어플라이의 서비스를 등록하면 기본 월단위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비용절감이 실현될 때만 고객사가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고객사의 항공료 절감 건수가 많을수록, 절감 액수가 클수록 페어플라이의 수익이 커지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여행업계에 돌풍을 몰고 온 페어플라이는 설립 당시 이용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모델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주요 여행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엔터프라이즈 모델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페어플라이는 블룸버그 캐피털 등 여러 벤처캐피털로부터 총 470만 달러(약 53억 원)를 투자받았다. 특히 구글이 10억 달러에 인수한 웨이즈Waze의 창업자 우리 리바인Uri Levine이 페어플라이에 투자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평가되는 웨이즈는 실시간 교통 및 도로 상태 업데이트와 매핑을 통해 역학적 운전 최적화 플랫폼으로 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낸 기업이다.

페어플라이의 플랫폼은 '포춘 500대 기업'의 출장관리자, 재무임원, 조달 담당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며 항공업계 전문 미디어 포커스와이어사의 '주목받는 스타트업 25'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WRITER 김산들 PHOTO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엔씽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과 만나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대에 따라 이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각광을 받고 있다. 스마트팜의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주요 시스템 및 장치에 중소기업 관련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미래 성장 산업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분야, 중소기업 접목 사례 등을 알아본다.

농업환경 악화에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스마트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스마트팜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연중 일정한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농사 기술에 ICT를 결합한 농장이다.

IoT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토양 등을 측정·분석하고,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팜 개발 보급에 앞선 나라가 네덜란드다. 농가의 95% 정도가 스마트팜이다. 네덜란드는 일찍이 시설농업(비닐하우스, 유리온실에서 농산물 생산)을 도입해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높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ICT 기반의 스마트팜을 원예, 축산, 과수 등 각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농업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선정, 정부 주도로 보급 중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보급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갈수록 노령화되는 농촌에 젊은 층, 도시민의 신규 유입 가능성을 높일 거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은 2010년 이후 시작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17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면적은 4,010헥타르ha로 2016년 1,912헥타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축산 스마트팜도 2017년 790호로 2016년 411호 대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팜 보급률은 10%가 채 안 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적극 도입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 현장의 관심도 높다.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생산성은 약 30% 증가한 반면, 고용 노동비는 8.6%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효과도 크다.

샐러드 채소 전문 농장 ㈜미래원(대표 박종위)은 국내 최대의 수직형 스마트팜이다(565m² 규모). 양액 등 각종 제어 시스템 등에 국산 기술과 자재를 투입해 2014년 완공되었다. 스마트팜의 도입으로 이상기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영양과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졌다. 샐러드 시장가격과 수요 등을 고려한 계획생산이 가



2017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면적은
4,010헥타르로
2016년
1,912헥타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능해지고,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면서 매출도 향상되었다. 파프리카·토마토 전문 농장 ㈜우듬지팜(대표 김호연)은 스마트팜에서 파프리카 400톤[t], 토마토 600톤을 생산해 2017년 기준 1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스마트팜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면서, 시설원예 스마트팜 최초로 농식품 펀드 60억 원을 유치했다.

김호연 대표는 "스마트폰으로 농장을 원격 제어한다"며 "온실 내 안개분사기를 작동시켜 온도를 조절하고, 무인 운반차로 수확물을 이동시키는 등 재배관리 주요 과정을 자동 관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스마트팜 시스템과 활용 방법 등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특히 ICT에 친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중심, 중소기업 접목 사례 다양

스마트팜 시스템은 생육환경 유지관리(온실·축사 내 온·습도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일사량, 이산화탄소[CO_2], 생육환경 등 자동 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영양분·사료 공급)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다양한 관련 기술과 자재가 투입된다.

스마트팜 유형별로 투입 기술이 다르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 온실'은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해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 및 관리한다. 내부 온도·습도 센서를 비롯해 영상장비(적외선카메라), 에너지 절감 시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스템 등이 들어간다. '스마트 과수원'은 온·습도,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자동으로 물 공급과 병해충 관리를 제어한다.

'스마트 축사'는 온·습도 등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한다. 최근에는 '노지채소 스마트팜'도 본격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생육, 환경 정보 등의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마른장마와 장기화되는 무더위 등 기상 악재 상황에서 물주는 시기와 양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산지 작황 정보, 생육, 환경 정보 등의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스마트팜에는 각종 데이터를 측정하는 IoT, 이를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로 만드는 빅데이터, 최적의 관리 조건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 **필리핀 스마트팜** 국내 기업이 참여해 필리핀 바기오시에 설치한 스마트팜. 필리핀 농업부D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공동 추진했다.



▲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기업 엔씽이 개발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스마트팜 '플랜티 큐브'. 수직 및 수평 배치가 가능하고, 내부 환경을 자동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팜 개발 업체 엔씽(대표 김혜연)은 원하는 규모에 따라 컨테이너 여러 동을 수평·수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플랜티 큐브'를 개발했다. 김 대표는 컨테이너에 설치된 IoT 기반 센서를 활용해 농장 환경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큐브 운영시스템OS을 개발했다. 온도, 습도, 조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작물 재배용 LED, 재배 배양액 등도 개발했다.

엔씽의 플랜티 큐브는 신선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운 환경인 중동 국가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시험용 농장을 구축 중이다.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지원 정책 활용해 볼 만

스마트팜을 짓고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는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데 가장 주저하는 부분이다. 이에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합쳐 스마트팜 설치비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지역별로 비율 상이). 농식품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액은 2018년 4월 말 현재 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78억 원 대비 약 4배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금리 1%, 최대 30억 원)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수관비·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센서, 제어·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를 한 번의 사업 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농가 보급을 2022년까지 7,000헥타르, 축사 5,750호로 늘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전국 4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산학연 연구 과제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도 한다. 스마트팜 개발 업체 ㈜이지팜(대표 김영국)은 정부 주관의 스마트팜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접목해 수경재배 스마트팜 '팜토리'를 출시했다. 생산, 포장, 보관시설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물의 생산량, 판매금액, 소요 비용과 당일 해야 할 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청

년 농부나 귀농인도 매뉴얼에 따라 쉽게 농작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제를 중점 지원 중인데 이 중 하나가 스마트팜 분야다. 스마트팜과 관련해 수출용 스마트팜 플랜트 표준모델 및 자재, 이미지·모션 트래킹 기반의 자율 대응 시스템, AI 기반의 스마트팜 플랫폼 등 8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스마트팜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 전망 밝아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세계 공통이다. 선진국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2016년 90억 달러(약 10조1,800억 원)에서 2022년 184억 달러(약 20조8,200억 원)로 커질 전망이다.

스마트팜에 가장 관심이 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팜 산업은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주력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농기업 및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있다.

중국 기업 징동京东은 20여 개 식품 브랜드와 협력해 스마트캠과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생산 등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내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팜에 아시아 등 해외의 관심도 높다. 세계 스마트팜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데다, 우리 ICT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3월에는 필리핀 바기오시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 자재를 적용한 '토마토 시설팜'이 문을 열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토마토 시설팜 설치에는 인포밸리코리아(시설팜 활용 정보 시스템 및 DB 구축), 신한에이텍(토마토 재배 시설팜 및 양액 시스템 구축) 등의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케이(K)-스마트팜 글로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열고 있다.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있는 외국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농기업 간 1:1 상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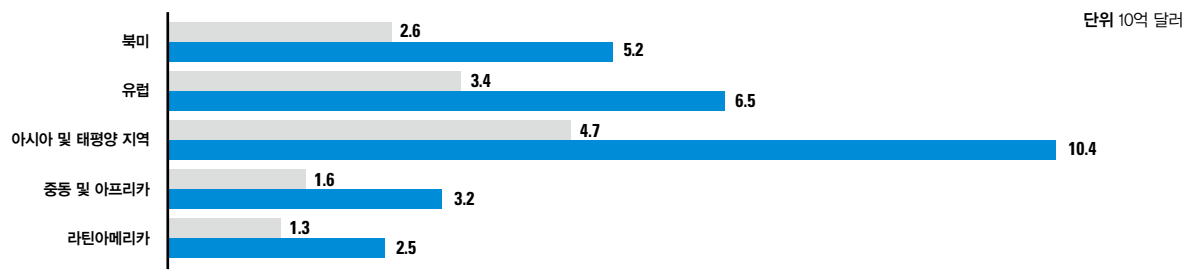
스마트팜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42%에 불과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 세계 2위인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보급률이 95%인 것만 봐도 그렇다. 앞선 ICT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한국형 스마트팜의 국내외 보급 확대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스마트팜 보급 실적(누계)

구분(누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설원예(ha)	345	405	769	1,912	4,010
축산(호)	-	23	177	411	7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



자료 화웨이·코트라

WRITER 이현수 IBK기업은행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장 PHOTO 한경DB

극동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주목하라

러시아, 그동안 여러 이념적·지리적 문제로 멀게만 느껴졌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극동 러시아 지역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90년 9월 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러시아의 문을 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두드려 왔으나, 러시아 시장은 쉽게 열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한국은 각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지리적·역사적으로 인접한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의 대對러시아 투자 진출 추세가 극동 지역으로 시선을 서서히 옮기고 있다.

이곳 극동 러시아 지역은 한국, 러시아, 중국 3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적으로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을 보유한 3국 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 지역이다.

변화의 물살을 타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우리의 역사적 관계를 잠시 돌이켜보면, 1863년에 농민 13가구가 우수리강 유역 포시예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해 한때 25만여 명이 거주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위한 의병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 곳이다.

인구 약 60만 명, 서울시의 약 2분의 1인 331㎢의 면적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9,288㎞의 시작점인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선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유일한 경제 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지난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극동연방관구의 행정수도를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도록 서명해 극동연방관구의 수도가 되었으며, 2015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하면서 극동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

또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2025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국



이현수 IBK기업은행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장

가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0조5,000억 루블(약 206조2,2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항만,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인프라 및 행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보장하는 극동 지역 총 18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조선업 현대화 사업의 한 축이 되는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볼쇼이카멘 지역에 1,500억 루블(약 25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을 보유한 3국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 지역이다.

극동 러시아인들의 우호적 시선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는 현재까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다소 악화시켰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대외적인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규모를 늘려 가는 등 내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세부 추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9-브리지Bridge 전략 추진	**(수산)** 어항, 물류, 가공시설 조성 **(농업)** 연해주 농업기지 구축, 곡물저장시설 설치 **(전력)** 한·중·몽·일·러 광역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 활성화 및 남북철도와 연결 **(북극항로)** 북극항로 상업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 **(가스)**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스 협력 사업 확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조선)** 극지 이동 쇄빙 LNG 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 **(항만)** 극동 지역 항만 건설·현대화 **(산업단지)** 연해주 공단 조성 등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동부권역(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3성)** 경협 강화를 통한 한·러 간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 자원 개발,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확대 **서부권역(서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첨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 협력 강화
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 금융 인프라 구축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 등 주요국 정부 간 협의 채널 구축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 투자 확대 기반 조성 각종 금융 지원 강화(20억 달러 규모 한·러 간 협약 체결 등)
문화, 인력 등 협력·교류 다각화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및 협력 추진 정치·외교, 문화·관광, 보건·의료,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인적 교류 활성화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원회·부처 합동으로 기업 진출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협력 체계 가동, 현장 밀착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종합 정보 포털 구축 등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

아직까지는 서방의 대러·대북 경제 제재의 향방을 가늠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그 가능성은 항상 언제, 어디에서든 갑자기 열릴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곳 또한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되지 않을까?

한국과의 지리적·역사적 인접성은 2017년 10여만 명을 비롯해 2018년에는 약 22만5,000여 명의 한국 관광객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극동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근래 한국인들의 입국 러시에 따른 관광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왔다.

러시아인들은 소득의 약 60% 이상을 물품 구매 등에 소비하고 있는 구매력이 강한 민족이다. 유럽산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러피언 러시아 지역과는 달리 이곳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의 제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각종 한국산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을 주요 시장과 슈퍼마켓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러시아인들의 인식과 구매력에 기인한 소비성 제품 또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으로 들여오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산이며, 우수리 지역의 광활한 대지를 우리 영농 업체가 진출해 콩과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키워 러시아 국내 판매 및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기도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해 서서히 서쪽으로

러시아 측에서 진행하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운 절차, 언어적인 문제, 관습의 차이 등 산재해 있는 너무나 많은 장벽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규모가 상당히 큰 대형 프로젝트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에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는 있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에도 새로운 목적사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러시아에서는 처음부터 큰 것을 계획해 시작하고, 또 조기에 그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 가면서 서서히 서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오래전 단신으로 주사바늘 한 개를 들고 들어와 러시아 시장을 두드렸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생각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의 결과, 이제는 의료용품 분야의 안정적인 대對러 수출기업인으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무것도 할 것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러시아 시장,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 먼저 가까운 극동 러시아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관심을 갖고 두드려 보면 그 해답은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선도개발구역 현황

단위 10억 루블

분야	명칭	분야	투자액	지정 시기
연해주(4)	나데진스카야	경공업, 물류, 식품	60.6	2015년 6월
	미하일롭스키	곡물생산, 농축산업	119.2	2015년 8월
	볼쇼이카멘	조선	180.8	2016년 1월
	네프티히미체스키	석유화학	658.9	2017년 3월
하바롭스크(3)	하바롭스크	물류, 산업	57.3	2015년 6월
	콤소몰스크	항공기 제작 산업	96.7	2015년 6월
	니콜라옙스크	수산	8.7	2017년 4월
아무르주(3)	프리아무르스카야	물류, 산업	136.6	2015년 8월
	벨로고르스크	농업	5.2	2015년 8월
	스보보드니	가스화학	960.9	2017년 6월
사할린주(3)	고르니 보즈두흐	관광	26.4	2016년 3월
	유즈나야	농업	20.4	2016년 3월
	쿠릴	수산	12.6	2017년 8월
캄차트카주(1)	캄차트카	산업, 관광	38.3	2015년 8월
추코트카(1)	베링콥스키	광업	22.5	2015년 8월
유대인자치주(1)	아무로-힌간스카야	농축산업	16.7	2016년 8월
사하공화국(2)	캉갈라시	산업	7.8	2015년 8월
	유즈나야 야쿠티야	광업	34.0	2015년 12월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USA

일시적으로 둔화한 고용·소비는 견조하게 회복, 생산은 다소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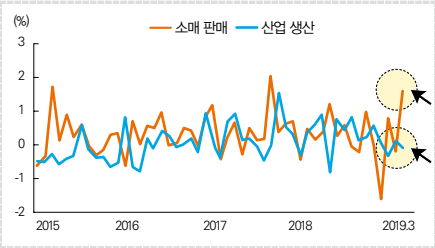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9만6,000명이 증가하며 2월 부진에서 회복했다.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2017년 7월(–3,000명) 이후로 처음 감소(–6,000명)했다.

실업률은 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지속했다.

3월 소매판매는 1.6%(전월 대비) 증가해 2017년 9월(2.0%)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및 부품(3.1%), 식음료(1.0%), 주유소(3.5%) 등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3월 산업생산은 제조업 보합(0.0%, 전월 대비), 광공업(–0.8%)이 크게 둔화하며 0.1% 감소했고, 설비가동률도 78.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 설비가동률(%): 79.1(2019.1) → 79.0(2) → 78.8(3)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주 전월 대비 **자료** 미 통계청·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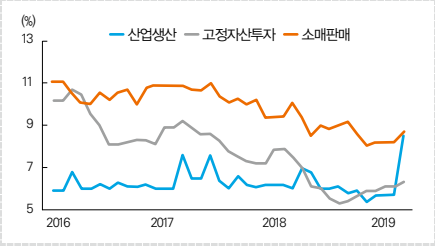
China

2019년 3월 주요 지표가 모두 회복, 경제성장률* 하락세도 진정

*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 6.8(2018.Q1) → 6.7(Q2) → 6.5(Q3) → 6.4(Q4) → 6.4(2019.Q1)

생산·소비·투자·수출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증대,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다. 3월 산업생산(전년 동기 대비, 8.5%)은 일반장비(14.1%), 특수장비(16.4%) 등 제조업(9.0%)이 늘었고, 소매판매(8.7%)도 가전(15.2%), 화장품(14.4%) 등이 늘어 증가했으며, 고정자산투자(6.3%)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14.2%)도 춘절(2.4~2.10) 이후 조업 재개 영향 등으로 개선되었다.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되면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도 하락세를 멈추고 전 분기와 동일한 6.4%를 기록했다. 정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2분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생산·고정투자자산·소매판매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Japan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해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소비자물가 증가율(%): 0.2(2019.1) → 0.2(2) →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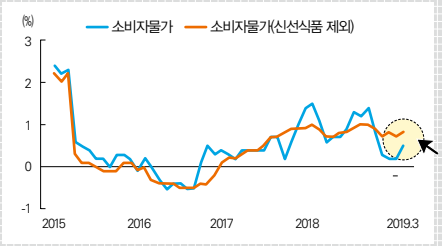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해 2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해 시장 예상치(0.7%)를 상회했다.

*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증가율(%): 0.8(2019.1) → 0.7(2) → 0.8(3)

한편 일본 정부는 4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 2019년 일본 소비자물가 전망치: 일본은행[BOJ](1.9%), 민간기관 평균(1.2%)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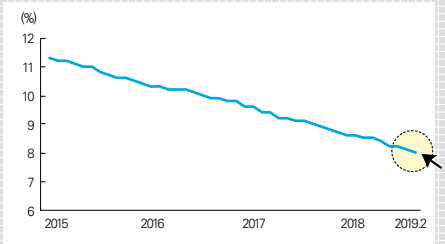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일본 통계청

Eurozone

낮은 실업률, 유로존 경제의 '양날의 검'

최근 발표한 2월 실업률은 2개월 연속 7.8%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2008년 9월 이후 무려 10년 5개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낮은 실업률은 일단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잠재해 있다. 올해부터 독일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크라이나 등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취업문 개방을 확대했다. 이는 기존부터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등 주변국의 노동자 이탈을 불러와 연쇄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노동력 부족이 민간소비 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업률



자료 유로스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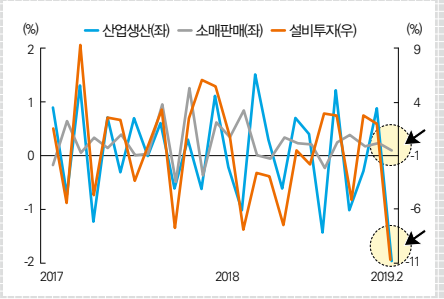
Korea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부진

2월 생산(-1.9%)은 자동차(-3.2%), 운송장비(-8.0%) 등 제조업(-2.6%)이 줄고, 설비투자(-10.4%)도 기계류(-11.5%), 운송장비(-7.1%)가 줄어 감소했으며, 소매판매(-0.5%)는 설 연휴(2.2~2.6) 음식료품 선(先)구매, 신차 대기 수요 등으로 감소 전환되었다. 또한 제조업 재고(0.5%)는 늘고 출하(-2.0%)가 감소, 2월 재고율(114.5%)이 상승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71.2%)도 전월 대비 하락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월 대비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각각 11개월, 9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 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서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해 4월 중 추경안(7조 원 규모)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생산



주 전월 대비 **자료** 통계청

수출은 반도체 · 중국 수출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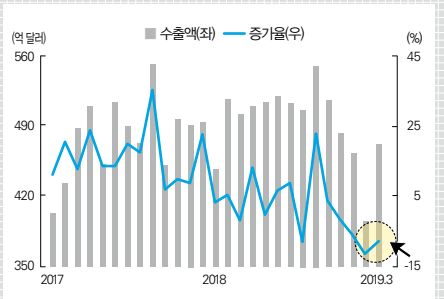
3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0일)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471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리스크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수출: 513억1,000만 달러로 역대 3월 중 최대치 기록.

※ 월별 수출 물량(전년 동기 대비, %): +8.0(2019.1)→-3.3(2)→-0.9(3)

지역별로는 미국(4.0%)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교역량 감소로 중국(-15.6%), 일본(-12.9%), 유럽연합EU(-10.9%), 아세안(-7.6%), 중동(-25.6%)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차(94.8%), 바이오헬스(13.0%), 2차전지(10.2%) 등 신성장 품목은 호조세를 지속했으나, 무선통신(-32.3%), 반도체(-16.2%), 철강제품(-5.2%), 석유제품(-0.9%)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환율

Exchange Rate

3월 원/달러 환율은 상승: 평균 1,130.1원, 월말 1,137.8원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C의 신흥국 채권 매각 소식에 따른 원화 수요 심리 악화 등으로 1,140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위축된 심리가 완화되어 1,130대로 반락했다.

4월 원/달러 환율은 1,130~1,140원대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이 당분간 지속되고,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것은 원화 약세 요인이나,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과 미 연방준비제도Fed 및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 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해 원/달러 환율은 현재 수준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 요인	하락 요인
① 국내 경기 둔화 우려 ②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에 따른 달러 수요 지속	①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 ② 미 연준 및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

2019년 2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31원

블룸버그에서 실시하는 주요 투자은행IB 24개사의 2019년 2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131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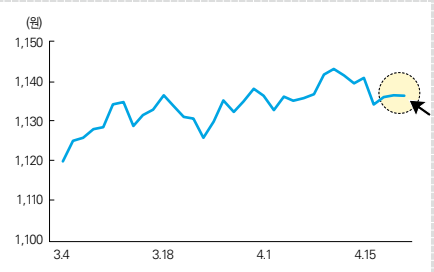
1,130원 초과 1,140원 이하로 전망한 IB가 7개사로 가장 많았고, 1,140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IB가 5개사로 조사되었다. 최소값은 1,105원, 최대값은 1,150으로 나타났다.

2019년 3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29원

2019년 3분기 말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1,129원으로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소값은 1,090원, 최대값은 1,165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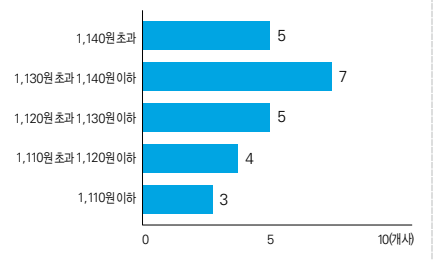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19.3.21~4.15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 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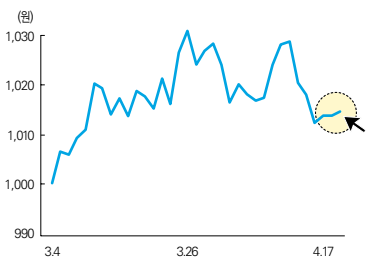
주요 IB 환율 전망



주 2019년 2분기 말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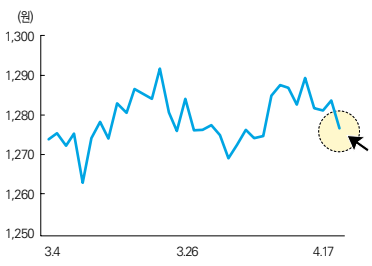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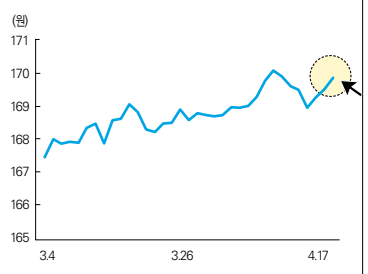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 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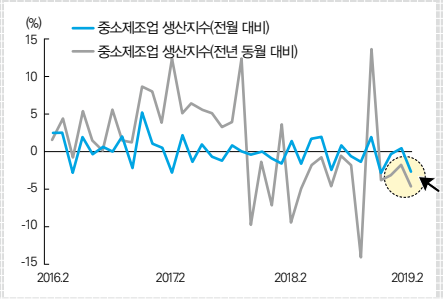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19년 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2.6%,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감소했다. 특히, 기계장비와 전자부품은 지난달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해당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31.8%), 의약품(3.7%)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3.2%), 기타 운송장비(–8.0%) 등은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5.0%), 자동차(2.6%)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계장비(–12.3%), 전자부품(–12.7%)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생산



자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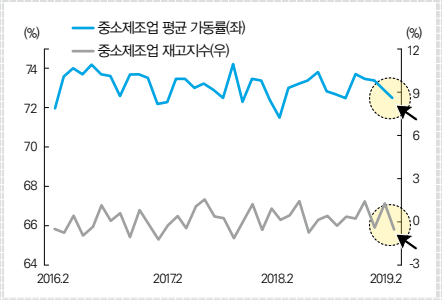
2019년 2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소기업(5~49인)에서 0.2%포인트 증가했으나, 중기업(50~299인)에서 1.2%포인트가 하락해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72.4%를 기록했다.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19년 2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9.5%), 기계장비(2.7%)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6.1%), 자동차(–1.5%)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주 전월 대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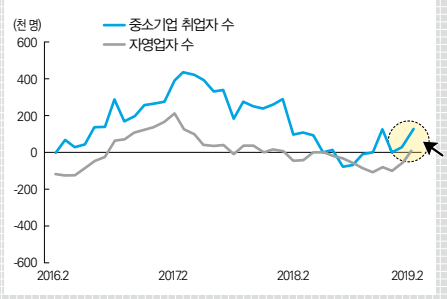
2019년 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6만4,000명이 증가했고,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5만9,000명이 감소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38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19년 2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000명이 증가해 548만 명을 기록했다.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WRITER 황준성 IBK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 대리

위기의 국내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으로
연간 수출액은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효자 종목인 만큼 아픈 구석도 많다.
최근 이슈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 본다.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임 산업은 지난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대표 게임 업체인 넷마블과 엔씨NC소프트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16.6%, 2.0%가 하락했다. 넥슨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김정준 대표의 지분 전량 매각 소식으로 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늪에 빠진 국내 게임 산업, 무엇이 문제일까?

이슈 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게임 관련 규제

세계보건기구WHO는 과도한 게임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게임중독을 하나의 병으로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 WHO의 포즈냑 박사가 게임중독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겠다고 했으며, 올해 5월 정기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게임 장애가 포함된 국제표준질병분류ICD가 채택되면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내 연구진은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가 실행되면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에 수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셧다운제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으로 게임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게임 행위가 병으로 인정된다면, 게임 관련 규제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역시 게임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북미, 유럽 등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들어 중국 정부가 내자 판호마저 발급을 중단하면서 중국 게임 시장 성장세가 다소 약해진 점도 국내 업체들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판호**

게임 출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일종의 '허가권' 개념으로 자국 게임에는 내자 판호, 외국산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한다.

이슈 ② 중국 시장의 급격한 성장

2018년 기준, 중국 게임 산업 규모는 344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 이용자 수 역시 6억1,95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게임 산업은 지난 10년간 풍부한 자금력과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꾸준히 게임이

황준성
산업 연구, 산업 트렌드 및 미래 산업 분석, 산업별 동향 및 이슈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심승보 엔씨소프트 전무가 2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리니지M 미디어 컨퍼런스 '히어로HERO'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마스터 서버', '무접속 플레이', '보이스 커맨드Voice Command' 등의 개발 비전을 소개했다.

출시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고, 산업이 점차 안정되면서 우수한 개발 인력 유입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내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게임 산업의 성장이 국내 게임 업체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산업의 훈풍을 타며 중국 게임 업체가 크게 늘어났지만, 갑작스런 중국 정부의 내자 판호 발급 중단으로 개발한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지 못했다. 이에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게임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슈 ③ 특정 장르 & 대형 게임사 작품으로의 편중 현상

글로벌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이 전체 게임 산업에서 4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장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게임은 PC 게임보다 적은 개발 비용으로 다양한 층을 공

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폰 출시 당시 많은 중소 제작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슈팅, RPG, 리듬 게임, 퍼즐 등 거의 모든 장르의 게임들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발사들은 새로운 도전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MMORPG 장르에만 집중하며 특정 장르로의 작품 쏠림 현상이 시작되었다.

한편, 게임 시장에 수많은 MMORPG가 쏟아져 나오자 게임 이용자들은 비슷한 유형의 게임에 피로감을 느끼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기보다 1~2개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결국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형 제작사의 게임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대형 게임사 작품 선호 현상에 따라 중소 제작사들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작비를 최소화한 1인 제작사, 인디 게임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슈 ④ IP 비즈니스

최근에는 기존 PC 게임이나 유명 웹툰 등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IP(Internet Protocol)를 활용해 개발된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 게임·웹툰의 IP는 캐릭터성과 홍보성을 모두 충족시켜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6년에는 웹툰 IP 기반 게임이 대세였으며, 지난해에는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한 게임이 주류를 이뤘다. 지난해 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10위 중 6개가 온라인 게임 IP 기반 모바일 게임이 차지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가장 유명했던 '리니지'의 경우 직접 개발 및 간접 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순위

순위	게임	퍼블리셔	IP
1	리니지M	엔씨소프트	리니지1
2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넷마블	블레이드&소울
3	검은사막 모바일	펄어비스	검은사막
4	트라하	넥슨	–
5	브롤스타즈	슈퍼셀	–
6	리니지2 레볼루션	엔씨소프트	리니지2
7	뮤오리진2	웹젠	뮤

주 2019년 4월 22일 기준, 매출 기준

문제는 웹툰 IP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어떤 개발사이건 IP를 계약해 게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게임 IP는 그 게임을 개발한 업체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게임 IP를 소유한 업체는 대부분 대형 개발사이기 때문에 대형사 위주로의 시장 재편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중소 게임사가 사라진 자리는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게임사가 들어오고 있어 국내 게임 시장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건강한 게임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이 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 게임사가 탄탄해져야 한다. 중소 게임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임 개발 초창기 국가직접자금을 지원받아 힘들게 게임을 제작하지만 그 게임이 한번 실패하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 더 이상의 게임 개발이 어려워진다. 현재처럼 중국 자본에 시장이 잠식되고, 특정 장르의 게임이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소 게임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스타트업, 중소 제작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할 때다. 또한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 게임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게임 산업의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다. 국내 게임 산업이 도전과 시련을 이겨 내고 재도약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이상범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컨설턴트
IBK기업은행의 'IBK동반자컨설팅 프로젝트'에서
경영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디지털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일 뿐이다. 성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변화에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산업, 사회 등 거시적인 시각에서 변화되는 관점이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관점에서 변화되는 미시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별 변화

1단계	2단계	3단계
1990년대 디지털 제품 출시 및 인프라 기반 구축 단계	2000년대 초 e커머스 및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단계	2010년대 초로 비즈니스 모델 및 경영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디지털화된 제품이 출시되고 서버, 네트워크 등의 기업 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에 기반한 상거래와 기업 내 마케팅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 전략 등 기업 경영 전략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추진

※ 앤디 로셀 가트너Gartner 부사장이 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3년 상상Imagine 단계 – 2014년 촉진Drive 단계 – 2015년 구축Build 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형 및 사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는 기업 내 비즈니스 모델, 생산 과정, 서비스, 고객 맞춤형 제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사례로 에어비앤비Airbnb는 숙박 공간을 보유한 집주인과 이용자 간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고, 우버Uber 또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으로 생산 과정에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디다스Adidas가 추진한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가 대표적이다. 스피드 팩토리는 로봇과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무인 자동화 공장으로 2016년 9월 독일에서 처음 생산을 시작했으며, 6대의 로봇이 2개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한 라인은 신발 바닥을, 다른 라인은 신발 윗부분을 만들어 한 켤레를 생산하는 데 약 5시간이면 충분하고 2일 이내에 고객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스피드 팩토

리는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600명에서 10명으로 생산관리 직원의 감축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사례로 스타벅스Starbucks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타벅스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로 변신을 도모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플라이휠Digital Flywheel을 도입해 모바일로 편리한 주문과 결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고객 경험을 높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스타벅스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사이렌 오더Siren Order' 서비스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주문·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별 재고 현황, 음료 주문 순번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으로 역수출된 사례이기도 하다.

넷째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사례로 버버리Burberry는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스타일의 트렌치코트를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루엣, 섬유, 컬러, 디자인 등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20만 개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세포라Sephora는 디지털과 소비자를 접목하는 기술로 버추얼 아티스트Virtual Artist를 통해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고도 소비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아이큐 스테이션IQ Station에서는 소비자가 피부색을 측정하거나 자신의 취향을 입력하면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취향에 맞도록 제품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활용 방안 및 유의사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운영관리 등 경영 전반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최고경영자CEO의 명확한 비전과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CEO가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사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형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한 후 작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예산 등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하기보다는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예산 등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하기보다는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다.

WRITER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부설)주식평가연구원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지금 당장 환원해야 하는 차명 주식

차명주식에 대한 현행 세법상 취급 방법 및 실명전환 방안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절세 플랜을 소개한다.

차명주식 발생 원인과 실명전환의 딜레마

회사를 설립할 때는 과거에는 최소 발기인 수를 상법에서 제한해 주주의 구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기도 했고, 실제 투자자를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신용 불량 등으로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쁜 관행을 끊고자 정부에서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둔 적도 있었지만,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실명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과세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실명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명주식을 통한 대재산가의 세금 부담이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제도가 있음에도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때로는 회사가 발전해 주식가치가 커짐에 따라 명의자 가족들이 주식에 대한 욕심이 생겨 실명전환을 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실명전환이 어려운 것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장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세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을 앞둔 고령의 기업주의 경우에는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명주식에 대한 현행 세법상 취급 방법 및 실명전환 방안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절세 플랜을 소개한다.

차명주식에 대한 세법상 취급과 경과

세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거 차명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동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후 차명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주식 취득 과정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부설)주식평가연구원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그 거래 당시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법원에서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그동안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했으나, 2019년부터 명의신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새로 발생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자에게 과세하지 않게 되어 이름을 빌려 준 명의자는 사정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그 사실을 밝힐 수 있으므로 주식명의신탁은 고려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름을 빌려 준 명의자는 사정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그 사실을 밝힐 수 있으므로 주식명의신탁은 고려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명주식의 입증 방법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장기간 보유하던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실명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대재산가의 차명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당국이 수집한 자료를 국세 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정밀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동안 탈루했던 각종 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려면 우선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부담 세액이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실명전환을 조기에 실행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차명주식의 입증 방법은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자본금 불입 내용 등을 분석해 실제 납부자를 확인하고, 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금이 실제 소유자에게로 흘러들어 간 과정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증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은 명의자의 상속 발생에 따른 명의자의 가족과의 분쟁을 방지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WRITER **신정은** 참고 자료 <트렌드 코리아 2019>(미래의 창)

당신은 매너 소비자인가요?

매너가 소비자를 만든다. 일부 소비자들의 직원 갑질이 늘어나면서 블랙컨슈머와 고객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비매너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은 대응책을 고민해야만 한다.



한때 웬만한 가게에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액자가 붙어 있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는 구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공급 과잉의 경쟁 속에서 직원들에게는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객에게는 업주의 각오를 과시하는 하나의 '의무장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친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고객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도 어디선가 크고 작은 고객의 횡포가 예삿일로 일어나고 있다.

갑질을 하는 이유

최근 들어 '손님은 왕이다'라는 기존 관행에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며 '손님은 손님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손님이라는 위치가 '갑'도 아니고 횡포를 부릴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인식이다. 2018년 주 52시간 근로나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시가 직장문화의 시간적·양적인 개선에 관한 것이라면, 감정노동 보호는 그 근무시간 안에 어떤 근로를 할 것인가에 관한 '질적인' 변화를 다룬다. 업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도 직원에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친절하라고 강요하기 어렵게 되었다.

'진상'이라는 용어가 있다. 본래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특산물을 윗사람에게 바치는 행위'를 의미했으나, 진상이 지닌 폐단이 부각되면서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세간에서 진상의 뜻은 '꼴불견이라 할 수 있는 행위나 그

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제 진상은 고객의 '갑질'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의 비매너 행태도 다양하다. 온라인 지역 카페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지역 여론을 주도하거나 회원들이 일부 가게에 과도한 할인이나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골목길마다 사람들이 몰리며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는 오버투어리즘 현상,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비매너 노쇼No-show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비자 행태다.

우리나라에 유독 갑질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송재룡 경희대 교수는 이러한 갑질 문제가 개인 차원의 심리나 정서적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경향성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갑질 문화의 뿌리가 유고의 차등적 윤리 규범에 기초한 형식적·위계적 권위주의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위계적 권위주의 문화는 우리 사회 속에 차별적이고 억압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위계적 지배구조의 일상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연공서열, 직업귀천, 남녀차별, 노소차별 등의 위계적·차별적 문화의 경향이 우리 의식구조 속에 상당히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라

제품의 품질만으로는 차별성을 갖기 어려워지자 친절한 서비스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는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 맹종으로 이어졌다.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특히 감정노동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현대의 노동이 감정노동으로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앓게 되는 심리 질환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경영학의 조직이론에서는 직원을 두고 '내부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직원도 또 하나의 고객이라는 것이다. 내부 고객의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는데,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저절로 나올 수는 없다. 그동안 고객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감정과 권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스스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갑질을 감행하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공적 방법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갑질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은 악성 고객에 대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직원, 특히 감정노동자들이 원칙을 가지고 권한 범위 내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공적 영역에서 반갑질 운동이 폭넓게 펼쳐져야 한다. 소비자 갑질의 사회적 문제점과 비인권성, 그리고 위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항상 고객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는 인지적 부조화 상태를 가리킨다. 스마일 마스크라는 가짜 표정을 쓰고서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 등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면 우울증'이라고도 한다.

WRITER 안송연 PHOTO 한경DB

가족여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골프

가까운 중국과 일본부터 세계적 휴양지 광과 사이판까지,
올여름 가족여행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골프 리조트를 소개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코스 미션힐스 리조트

미션힐스 리조트가 있는 하이난 지역은 중국 최남단, 하와이와 같은 북위 18도선에 위치해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연평균 기온이 영상 20도 선을 유지하는 아열대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션힐스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코스로 10개 코스, 총 180홀이다. 긴 전장과 더불어 147개의 벙커와 각종 장애물이 게임을 어렵게 하지만 최대 코스에서 라운딩하는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적 선수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2014년과 2015년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박인비 · 유소연 선수의 우승 코스이자 2013년에는 남자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의 빅매치가 열렸던 코스이기도 하다.

즐길 거리 리조트의 100% 천연 미네랄 온천도 아시아 최대 규모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168개 온천에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세계 5개 대륙의 온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일본 프로 선수의 손길이 닿은 명문 코스 루스츠 리조트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는 기후가 선선하고 습도가 낮아 7~8월에도 국내 골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홋카이도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골프클럽인 루스츠는 일본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인 오자키 마사시와 유하라 노부미쓰, 1989년 US오픈 우승자인 커티스 스트레인지가 설계했다. 오자키 마사시 프로의 손을 거친 타워 코스는 여름이면 그린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흰 자작나무 숲이 압권으로 상쾌한 산들바람을 맞으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유하라 노부미쓰의 코스인 이즈미카와는 웅장하지만 구릉 코스로 홀마다 고저 차이가 거의 없어 초급자와 여성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골프의 진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변화무쌍한 레이아웃, 자연경관과 자연 해저드Hazard를 최대한 활용한 전략성이 높은 코스 레이아웃 등이 골퍼들의 승부욕을 자극한다.

즐길 거리 골프 외에 레저시설도 세계적으로 이름 난 곳이다. 대규모 놀이공원과 야외 수영장이 있고 래프팅, 카누, 승마 등 다양한 레저도 리조트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불꽃놀이, 서비스 등의 이벤트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동쪽과 서쪽의 색다른 두 얼굴
라오라오베이 골프 앤 리조트



사이판 유일의 골프 리조트로 사이판 중심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 그렉 노먼이 디자인한 36홀의 코스는 바람이 많고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바다를 따라 설계된 이스트 코스와 정글과 호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웨스트 코스로 나뉜다. 끝없이 펼쳐진 코발트색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이스트 코스는 관광객에게 최고의 인기 코스로, 특히 해안 절벽과 절벽 사이의 바다를 넘겨야 하는 과감하고 정교한 샷이 필요해 골퍼의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반면 웨스트 코스는 타포차우산을 배경으로 넓은 페어웨이에서 여유로운 라운드를 즐기며 남국의 이국적인 정취와 열대우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즐길 거리 클럽하우스와 콘도 어느 건물에서나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고품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플레이의 재미를 더하는 험난한 지형
레오팔레스 컨트리클럽



괌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레오팔레스 컨트리클럽은 괌의 중심부 조니아 언덕지대에 펼쳐져 있으며, 4개 코스에 36홀, 520만㎡로 아널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공동 설계했다. 야생의 산림, 기복이 심한 지형, 시원한 폭포수, 웅장한 암석 등 자연과 조형이 어울려 만들어 낸 전략성이 풍부한 코스다. 1995년 서던 퍼시픽 오픈, 2009년 LPGA 스텝업투어 개최지로 이름을 알렸다. 전체적인 코스는 기복이 심한 데다 순식간에 공을 삼켜 버릴 숲이 코스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난코스는 파머C코스의 2번 홀로 길이 197야드로 앞에 있는 대나무 숲을 넘긴 후 벙커의 앞이나 숲의 왼쪽 옆에 정확히 착지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즐길 거리 리조트 시설이 괌 전체의 약 1%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트윈룸에서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에는 자쿠지를 비롯해 프로숍, 골프연습장, 로커룸 등이 갖춰져 있다.

the end

경기 침체, 두려움 대신 도전으로 맞서라

경기 침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더 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침체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이 불황을 딛고 일어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Apple
신사업 모델 발굴로 회생

2000년대 초 PC 시장은 불황으로 인해 가격 경쟁 위주로 재편되었다. 제품 디자인과 차별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경쟁력이었던 애플에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주력 제품인 아이맥i-Mac 등의 판매량도 급감했다. 애플은 MP3 플레이어 시장에 주목, 기능과 디자인이 아닌 감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 그 결과물이 아이팟i-Pod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기 판매는 물론 콘텐츠 서비스 영역에도 진출했다. 애플의 음악 관리 프로그램인 아이튠즈i-Tunes는 초기에 애플 운영체제 iOS에서만 작동되었지만 2003년에 윈도우용 아이튠즈가 발매되어 호환성이 강화되었다.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전략도 효과를 발휘했다. 미국 전역에 애플스토어를 개설해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율을 높였다.

Nokia
사업 영역 전환으로 1위 기업이 되다

노키아는 1980년대 말까지 목재, 제지, 고무, 케이블 등을 주요 사업군으로 보유했지만 1990년대 경기 침체를 맞아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하며 기존 사업을 매각하고, 이동통신을 주력 사업으로 선택했다. 당시 유럽 휴대전화 2위 업체인 영국의 테크노폰을 인수했고, 1992년부터 미국과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또 주류 시장이었던 아날로그 제품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로 디지털 휴대전화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선두 기업으로 올라섰다. 노키아는 1995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 18%로 2위, 1998년에는 23%로 1위를 차지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Canon
핵심 역량에 집중해 불황기를 넘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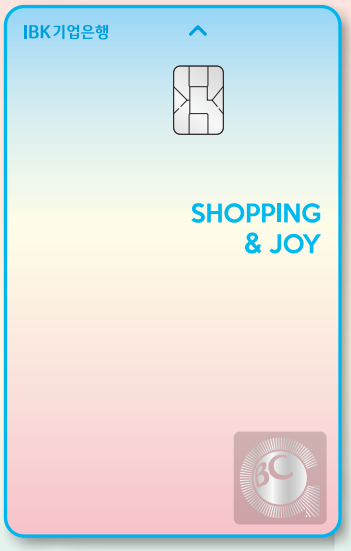
Delighting You Always

1980년대까지 사업 다각화에 힘썼던 캐논은 1990년대 일본 경기가 침체되자 핵심 역량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복사기, 프린터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집중했다. 그 외 PC, 태양전지 등 적자 사업들은 정리 절차를 밟았다. 디지털 복사기 분야에서는 틈새시장이었던 중소형 시장에 집중해 기회를 창출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 특허를 강화했고 경쟁사를 기술로 앞서는 전략을 택했다. 또 신사업으로 디지털 카메라에 주목해 신제품 개발에 적극 투자했다. 특히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광학 기술을 활용해 DSLR 방식에 집중했다. 캐논은 인력 관리 방식도 다른 기업과 달랐다.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종신고용제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했다.

(2018.9월 현재)

남보다 더 잘사는 비결

쇼핑앤조이



온라인 쇼핑 · 간편결제 건당 5천원 할인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건당 2천원 할인
해외 · 통신비 · 대중교통 할인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 BC글로벌 1만원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8-C1i-11277호 (2018.09.1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386호(2018.09.21) 게시기한 : 2019.09.13 출급번호 : CW613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 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IBK동반자금융

최선을 다해 이뤄갑니다
IBK동반자금융

IBK기업은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금융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